[큐레이션 콕콕] 대통령의 여름 독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독서광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어떤 책을 읽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독서와 '가을'만큼이나 독서와 '여름휴가'는 낯설지 않은 조합입니다.

대통령의 독서 목록을 처음 공개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독서광이자 연설가였던 그는 망명생활과 투옥기간 중에도 광범위한 독서를 했고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존 나이스빗 등 미래학자의 책을 주로 읽었습니다. 1999년 휴가 때는 『지식 자본주의 혁명』과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맹자』를, 2001년에는 『미래와의 대화』, 『비전 2010 한국경제』, 『배는 그만두고 뗏목을 타지』 등을 탐독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달리는 차 안에서도 책을 읽고, 30여 분 만에 책 한권을 떼는 속독파였습니다. 휴가 독서 목록에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넣었고 당시 100만부 이상 팔리기도 했죠. 『넛지』 같은 경영서와 『쉽게 읽는 백범일지』, 『로마인 이야기』 등의 교양서적도 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특히 책 읽기를 강조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 공식석상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 『대한민국 개조론』 같은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2003년 여름휴가 때는 IBM의 기업혁신 과정을 다룬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진보학자가 지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물리서적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등을 독파하기도 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노 대통령을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고, 독서의 내용을 현실 정치에 활용하려 했다. 장차관 워크숍이나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 같은 공식석상에서도 적잖은 책을 추천했다"며 '자유분방한 다독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출처_한국출판인회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한국출판인회의는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문구를 내건 독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세계는 인간중심, 문화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쳐나야 한다. 책이야말로 국민 창의력과 상상력의 근본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유력 후보들이 책 읽는 모습을 SNS 등에 올렸죠.

하지만 지난달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독서'는 없었습니다. 67번에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있고 68번에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 있지만 독서와 도서관, 서점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독서신문'이 아쉬움을 토로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타 출판사 책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름휴가에 읽는(읽을, 읽은)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책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인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이 책을 읽었다며 "마음으로 공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_경향신문

백악관은 해마다 대통령의 여름휴가 도서를 공개합니다. 2015년 '오바마의 책' 6권은 제임스 설터가 34년 만에 내놓은 장편이자 유작 『올댓이즈』,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프랑스 소녀와 독일 소년의 엇갈린 삶을 그린 앤서니 도어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인도계 미국 작가 줌파 라히리의 『저지대』, 환경과 인종 문제를 다룬 엘리자베스 콜버트의 『여섯 번째 대멸종』과 타너하시 코츠의 『세상과 나 사이』, 그리고 JP 모건, 록펠러 등의 일대기로 유명한 전기작가 론 처너가 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 『워싱턴: 한 사람의 일생』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독서가였다고 하는데 책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의외로' 다독가였고, 백악관에서 2년간 186권을 완독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대통령의 모습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국민들이 책을

멀리하자 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독서 캠페인을 벌여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독서 캠페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책 읽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자연스럽게 손에 책을 들게 될 것이다.”([김욱동 칼럼] 중에서)

‘대통령의 책’은 아니지만 여름 휴가지에서 읽으면 좋은 책이 각종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일찌감치 올 휴가철에 읽을 책 5권의 목록을 내놨는데 그 중에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소설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3인방’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도 모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네요. 차례로 『기사단장 죽이기』, 『잠』, 『위험한 비너스』입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하계 추천도서에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ICT사업 관련 도서가 많습니다. 『1등의 전략』(히라이 다카시/다산3.0), 『보이지 않는 영향력』(조나 버거/문학동네), 『퍼펙트 체인지』(송재용 외/자의누리),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필립 코틀러/더퀘스트), 『제4의 물결이 온다』(최윤식 외/지식노마드), 『플랫폼 레볼루션』(마셜 밴 엘스타인 외/부키),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KT경제경영연구소/한스미디어) 등이 있네요.

출처_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서평가들이 추천한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권’은 여기(국립중앙도서관 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독서는 역시 여름입니다.

* 본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1. [대한민국은 휴가 중②] 책과 함께 힐링 즐긴 역대 대통령들

2017. 7. 10. 뉴스포스트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 故 노무현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읽은 책들 .. 휴가법

2011. 8. 3. 사람세상 블로그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3. 한국출판인회의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캠페인

2017. 4. 21. 경인일보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4. [칼럼] 100대 국정과제, ‘독서’는 없었다

2017. 7. 20. 독서신문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5. ‘007’ 탐독한 케네디… 부시는 ‘링컨 전기’ 섭렵

2015.8.14. 경향신문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6. 朴 대통령 “결국 北은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

2016.10.5. 프레시안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7. [김욱동칼럼] 책 읽는 대통령

2017. 7. 16. 세계일보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8. 여름 휴가철 책 고르기

2017. 7. 14. 문화일보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9. 여름휴가, 책과 함께… KT경제경영연구소, 추천도서 발표

2017. 7. 11. 디지털 데일리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글, 이미지 / 이재은 뉴스큐레이터

문화예술정책동향

<인천시 주요사업>

□감·공존·공영… 인천시, 문화도시 5개년 계획 발□

인천시가 문화도시를 향한 5개년(2018~2022년) 중장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의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을 비전으로 3대 목표, 8개 범주, 21개 과제, 68개 사업을 제시했다.

□여름, 축제와 문화의 도시 인천에서 놀아□

인천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보다 보람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체험, 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천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

인천시가 뉴욕패션스쿨(FIT)에 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 국립해양과학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예술.해양 분야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기관 유치.설립을 추진한다.

□천시,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17건 확□

인천시는 올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할 17건의 정책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인천 문화예술 본산 집적화'가 선정되었다.예총, 민예총 등 예술인의 활동 본산을 시민 가까이에서 활동하도록 터전을 조성해 시민과 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천시-인천문화포럼 2018년 문화정책사업 위해 협□

인천시는 인천의 문화예술 정책과 아젠다의 상설 소통시스템인 「인천문화포럼」의 윤학원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5개 분과위원장과 함께 2018년 문화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천문화포럼, 시민이 문화를 만든다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담론 형성의 장인 인천문화포럼에서는 문화계의 숙원사업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천의 문화가치가 담긴 대표공연 콘텐츠 최종 선□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 첫 단계인 '시놉시스' 공모결과 노효신의 '두 여자의 집'과 이화정의 조병창', 고동희의 "빨간 우산'세 작품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영상 · 콘텐츠>

□5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성황리 폐막, "관객 두 배 증가"

지난 5월 26일부터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개최된 제5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크린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홍보 추□

인천시는 올 하반기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천시 관내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주민센터 영화관 등 12개소에서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각종 교육 및 공연 시작 전에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영상委 신포동에 '새둥지'

영화·CF 등의 인천지역 촬영 지원 등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인천 중구 옛 개항장 일대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문화시설 · 공간>

□천공연예술연습공간 1주년 … 낡은 가압펌프장의 '기특한' 변□

예전에는 상수도가압펌프장이었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건물. 인천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의 귀추가 주목된다.

□천문화예술회관 문화공간 오□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공간 내 기존의 유휴공간이 리모델링되며 친시민적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앞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매주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로 이채로운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 인천문예회관 야간 경관 명소 조성

인천시는 연말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일대를 야간 경관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각 군·구와 협의해 인천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해 관광코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역사 · 문화>

□천의 '흔적' 엿보는 3가지 방□

역사의 흔적을 담은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인천시민들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 예술 공간들의 장소적 특성을 반영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가치 재창조" 외치는 인천…근대문화유산 보호는 뒷□

'인천 가치 재창조'를 전면에 내걸었던 시 정책에 있어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 비용을 2년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화 역사·문화 알기쉽게 소식지 발간·누리집 개□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가 상반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누리집을 개편했다.

<지역 · 문화>

□천시 중구 신포동 도소매 상점거리 전시공간으로 변□

중구는 관광객 대상 사업 난항 청년 상인몰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사업 기간 공백을 활용 하여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에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을 위한 작품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천 중구, 관광지 안내 홍보 해설 서비스 관광마케팅 실□

중구지역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투어 코디네이터(관광지 안내, 홍보, 해설 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천시 연수구, 선학 음식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제막행□

연수구는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에서 상가 번영회 등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상가 주요 진출입구 설치한 상징 조형물 제막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체부, 현장과 함께 예술가 권익보장제도 마련 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작권 교류로 한중 협력 선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다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외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초청 사업(K-Fellowship) 추□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초청 사업(K-Fellowship)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에게 한국의 문화예술 현장 체험 및 국내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년작가들의 열정, 평창올림픽 주제 미디어예술로 만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을 계기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조명하고자 서울스퀘어의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예술(미디어아트) 릴레이 상영에 나선다.

□민 의견 반영해 새롭게 달라지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변화와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사업 추진 체계 개편과 참여 여건 향상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다.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 바뀐다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된다.

<추천자료>

□국적 생활문화공간 확산연□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유형·분류 체계와 평가 모형'은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일상문화에서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등에 대한 개념요소와 형식 요소 그리고 사회적·개인적 변수로서 상징과 가치체계가 고려되어 연구되었음.

□화예술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

문화예술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자료, 정부정책,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 및 단체 수요조사, 설문조사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실태·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개발하고자 연구됨.

□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

그간 공공기관 및 민간교류단체들의 국제문화교류 사업현황과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평가를 위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의 입법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과 관련통계 개발 방향성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짐.

2016 미술시장실태조□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는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시장 유통영역의 운영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술작품 유통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인천문화정보 아이큐를 소개합니다.

촬영,편집, 구성/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김유라

현대 각종 연극제의 기원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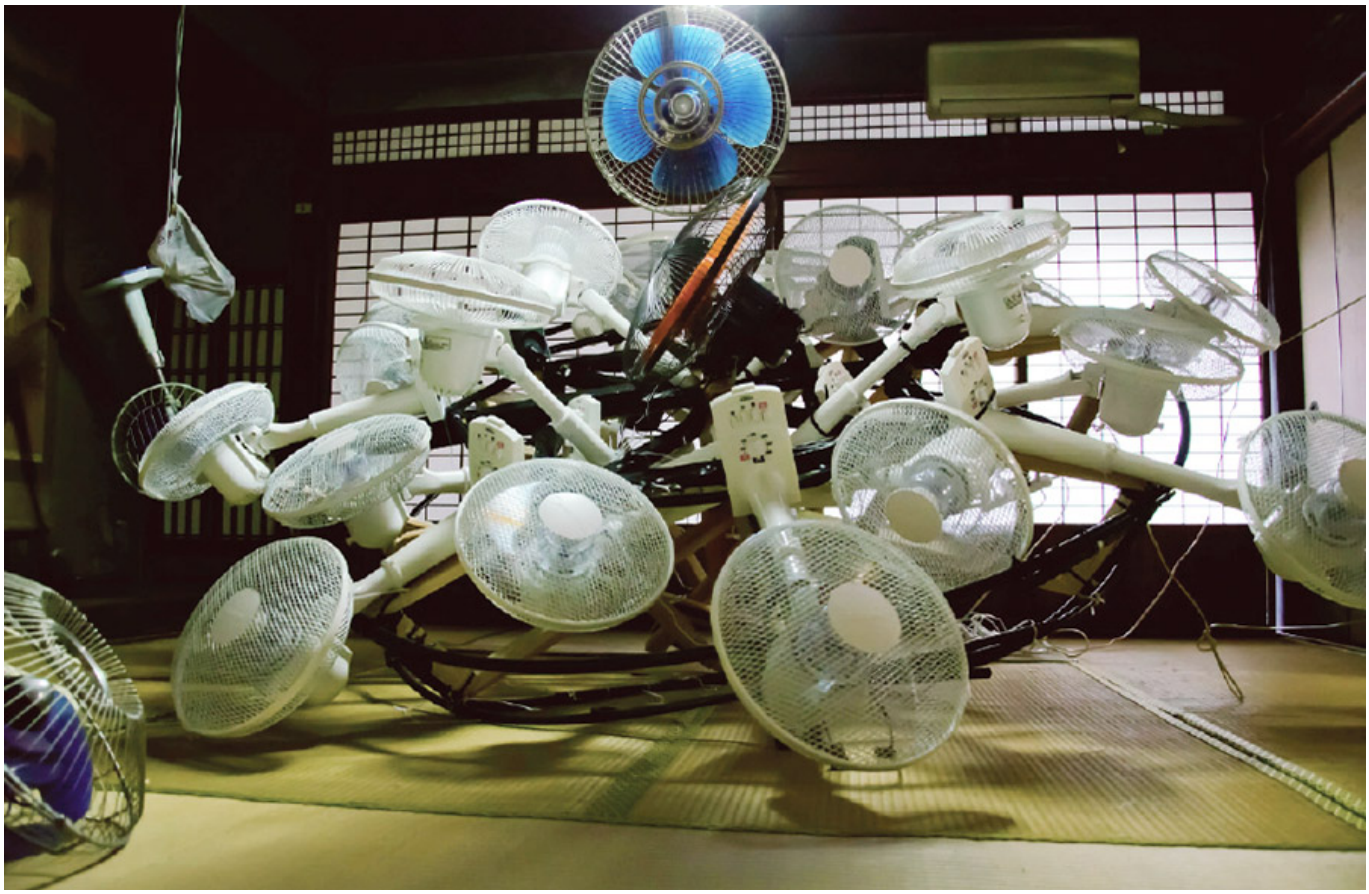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하는 한국근대문학관 소장품은 도서 자료가 아닌 비도서 자료이다. 1939년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2회 연극경연대회의 홍보 전단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각종 문학 행사 관련 홍보 자료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 전단지는 당시 극단과 극단 구성원, 경연대회 방식 등 희곡과 극단, 연극의 실제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연극경연대회는 1939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현재의 서울시의회 건물인 부민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전해 열린 제1회 대회와 달리 번안작이 아닌 순수 창작만을 참가 자격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총 두 면으로 된 이 자료는 앞면에는 일자별 참가 극단과 스폰서 광고가 있고, 뒷면엔 참가 극단인 낭만좌와 극연좌의 출품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두 극단은 단체상은 받지 못했지만, 남녀우수배우상(극연좌)와 희곡상(낭만좌)을 휩쓸었다. 인천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낭만좌의 출품작이 인천 출신 극작가 함세덕의「도념」이라는 점이다. 희곡상을 받은 이 작품은 나중에「동승」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해방기 출간되는 함세덕의 유일한 희곡집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작품이다.

글 / 함태영(한국근대문학관 학예사)

다이스케 쿠로다 (黒田大祐)

분꽃나무에 대하여

가변설치, 전기선풍기, 조화, 영상, 2016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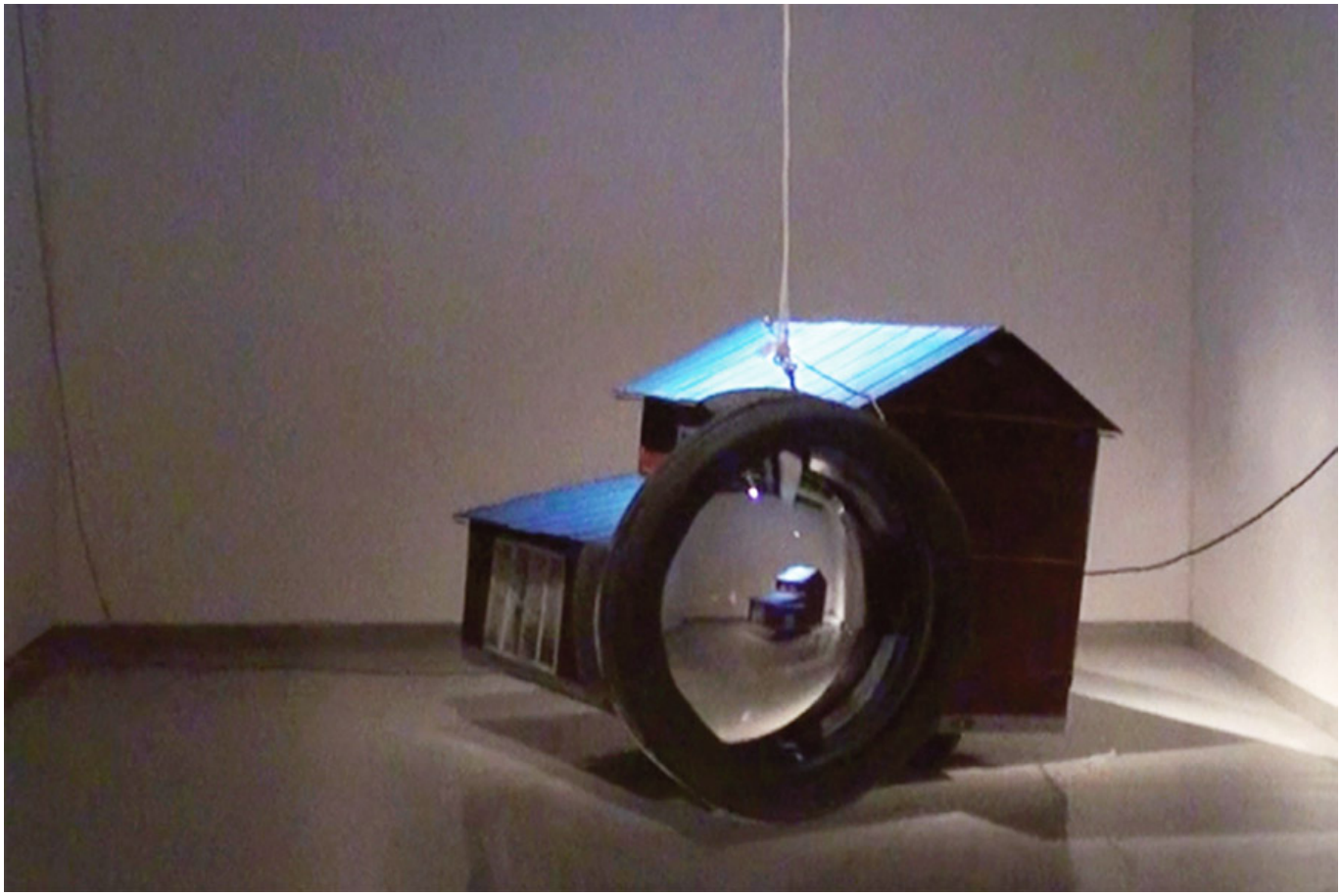
가변설치, 전기선풍기, 나무, 복합매체, 2011

동풍(東風)

가변설치, 전기선풍기, 나무, 2014

다이스케 쿠로다는 교토에서 출생하여 일본 히로시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설치미술 및 미디어아트 작가이다. 그는 요코하마의 뱅크아트1929와 인천아트플랫폼이 맺은 협약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인천에 머문다.

"코노우라의 오오지지 신사 사총*에 자생하고 있는 분꽃나무는 형태상 특이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새의 종자 산포로 인해 1회성으로 퍼진 것인지 아니면 과거 연속분포의 흔적으로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식생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인지.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임은 분명하다."

*사총: 일본 신사에서 신전과 신사 경내를 둘러싼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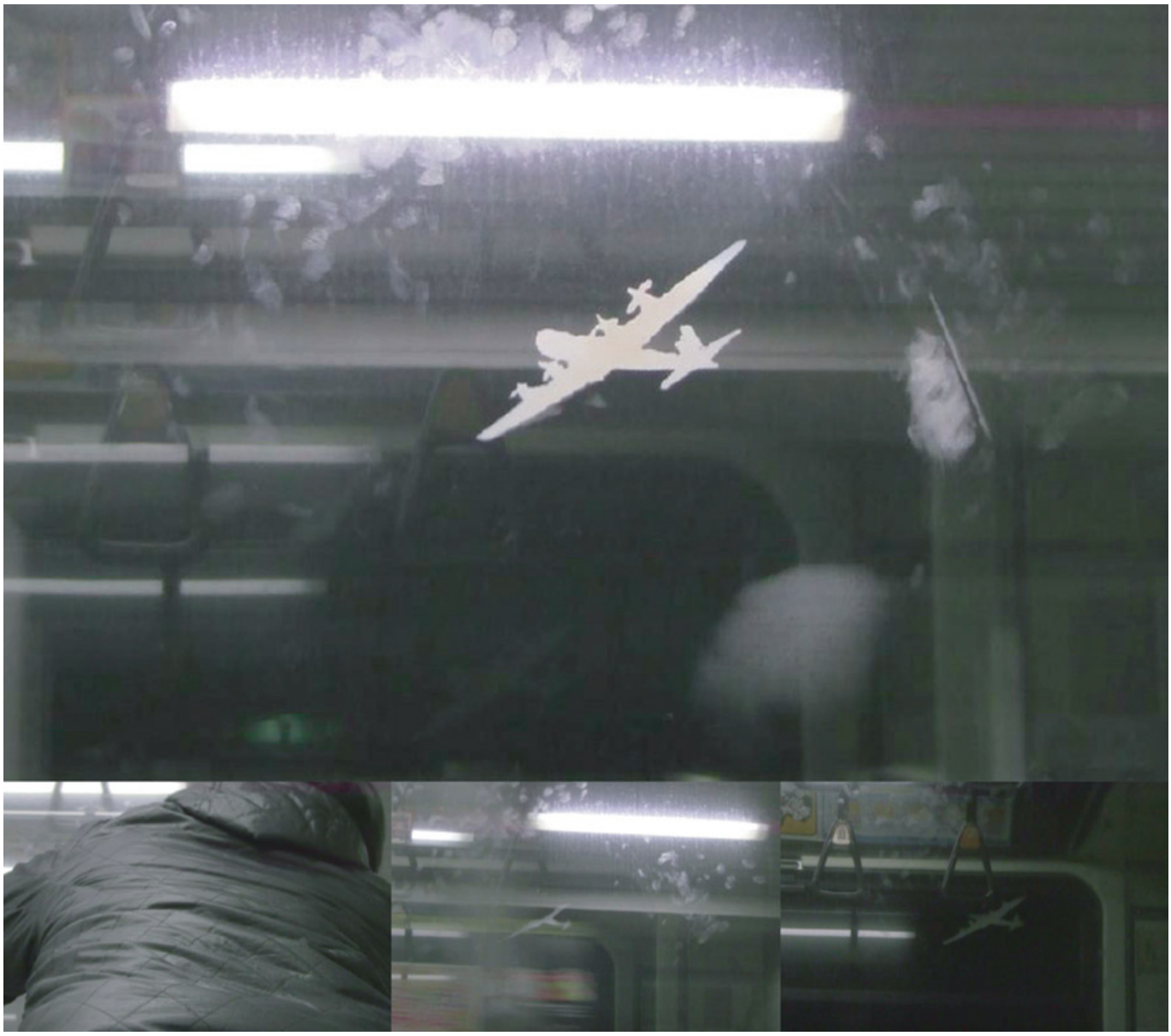
카타모토 츠요시, 「쇼도시마의 분꽃나무에 대하여」(가가와 생물학회, 1979) 중 발췌

위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꽃나무는 한국 남부 지방과 일본 규슈의 쓰시마, 주·시코쿠, 세토 내해 주변의 한정된 지역에서 자생한다. 작가는 분꽃나무의 특이한 분포 지역에 착안하여 2016년 쓰시마섬과 경상도 지방 일대에서 현장 답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꽃나무에 대하여>는 그러한 분꽃나무에 관한 리서치 기록으로 이뤄진 설치 및 영상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분꽃나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다. 자연물과 문명화의 관계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 그의 접근방식은 2012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의 대표작 <동풍(東風)>은 150개의 선풍기를 설치하여 이룬 작업으로서 죽어있는 공간들을 활성화시키는 '바람'을 만들어낸다. 교토 지역의 오래된 여관에서 전시한 2011년작의 <바람>도 더 이상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공간에 진동과 바람을 생성한 작품이다. 이처럼 작가의 주요 모티프인 바람은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는 존재로서 주로 선풍기라는 오브제로 구현된다.

선(仙)

가변설치, 자체제작 호버크래프트, 나무, 종이, 렌즈, 2013



□□ □ □□□

□□, 30□, 2010

히로시마의 돌들에게 묻기

영상(50분), 돌, 인터뷰, 2014

삿포로의 눈에게 묻기

영상, 15분, 2015

삿포로의 눈이 말을 한다

가변설치, 눈, 오디오, 2015

<선(仙)>은 작가의 박사학위논문의 주제이기도 했던 일본의 근대 조각가 헤이하치 하시모토(Heihachi Hashimoto)의 작품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계기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자체 제작한 호버크래프트 위에 그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을 설치하여 집과 호버크래프트가 물에 뜬 상태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앞에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멀리 있어 보이게 하는 대형 오목렌즈가 있다. 렌즈 안에서의 호버크래프트와 그 위의 집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목렌즈 실제의 설치물은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다 . 멀리서 보았을 때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물체가 가까이서 보면 생동하고 있는 상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의 2010년작 <어느 날 비행기>는 퍼포먼스 및 영상작품으로 작가가 미리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실크스크린을 유리창 위에 대고 입김을 불면 잠시의 시간 동안 유리 위에 비행기가 새겨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다 . 작가는 히로시마를 가로지르는 모노레일 창문 위에 이러한 비행기를 새기는 일시적인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역사를 전달하는 일이 지니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히로시마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하는 작업들을 2012년까지 지속하였다.

2014년의 <히로시마의 돌들에게 묻기>는 그가 새롭게 초점을 맞춘 자연물에 대한 관심과 기존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 혼합된 형태로서 히로시마의 돌들을 인터뷰하는 컨셉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그가 진행한 <삿포로의

눈에게 묻기>와 <삿포로의 눈이 말을 한다>는 이후에 등장할 <분꽃나무에 대하여>와 같은 선상에 있는 작품으로서 삿포로에 내리는 혹은 내린 눈에게 질문을 하고 눈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바람

가변설치, 조화, 철수세미, 인조모피, 기계, 2015

삿포로 풍경

가변설치, 실크스크린, 영상(7분), 2015

2015년의 <바람> 작품은 선풍기가 아닌 꿈틀거리는 조화(造花) 덩어리, 철수세미 덩어리, 인조모피 덩어리를 전시장 곳곳에 설치하여 또 다른 공간의 활성화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작품 속 오브제들이 실물 공간에 일으키는 신선한 바람은 기이하면서도 흥미로운 광경을 연출한다.

같은 해에 제작된 <삿포로 풍경>은 2010년작 <어느 날 비행기>와 같은 실크스크린-입김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서, 삿포로에 이주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역사적 이야기를 재해석하였다.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삿포로의 어느 우거진 숲이 보이는 창문 위에 자신의 실크스크린 나무를 입김으로 만들면 잠시 동안 그 나무는 삿포로의 실제 풍경과 어우러진다.

작가노트

나는 교토에서 태어났고 히로시마시립대 조소과에 입학하면서부터 히로시마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로 히로시마와 세토우치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소재로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에는 조화(調和), "문명화된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쓰시마섬과 한국에서 현장 작업을 진행하였고 관련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리학적 특징과 문명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키네틱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이 작업들에서 나는 이미지와 전자제품을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나는 조각매체 연구와 더불어 일본의 근대 조각가 헤이하치 하시모토(Heihachi Hashimoto)에 관한 연구, 아티스트 콜렉티브 '팀 야메요'를 이끄는 활동, 대안미술공간 히로시마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3개월(6~8월) 동안에는 인천의 지리학적 특징과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정보_자세히_보기

팀_야메요

히로시마아트센터

소개합니다.

[소식1] 2017 인천문화포럼 문화가치확산분과 '시민포럼위원 모집'

인천시민이 만드는 모두의 문화예술

2017 인천문화포럼 문화가치확산분과 시민포럼위원 모집

인천문화포럼은 시민과 문화예술계가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 할 수 있는 민·관 협력형 문화정책네트워크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문화가치확산분과 시민포럼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 문화예술로 인천을 발전시키고 싶은 인천시민(거주지 혹은 근무지 기준) 10명 내외
  (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등 문화예술을 즐기는 누구나 환영!)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포럼 회의를 통해 인천의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미래의 비전을 담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합니다.
- 각 군 · 구의 문화예술 담당자들과 함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회의 진행시 소정의 회의비 지급)

언제까지 활동하나요?

- 선정 시 ~ 2017.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② 자신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③ 이메일 접수(abc123@ifac.or.kr)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7.21.(금)~08.07.(월)
- 선정자 발표 8월 중 개별 연락

더욱 자세히 알고싶다면?

-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 032-455-7133 / abc123@if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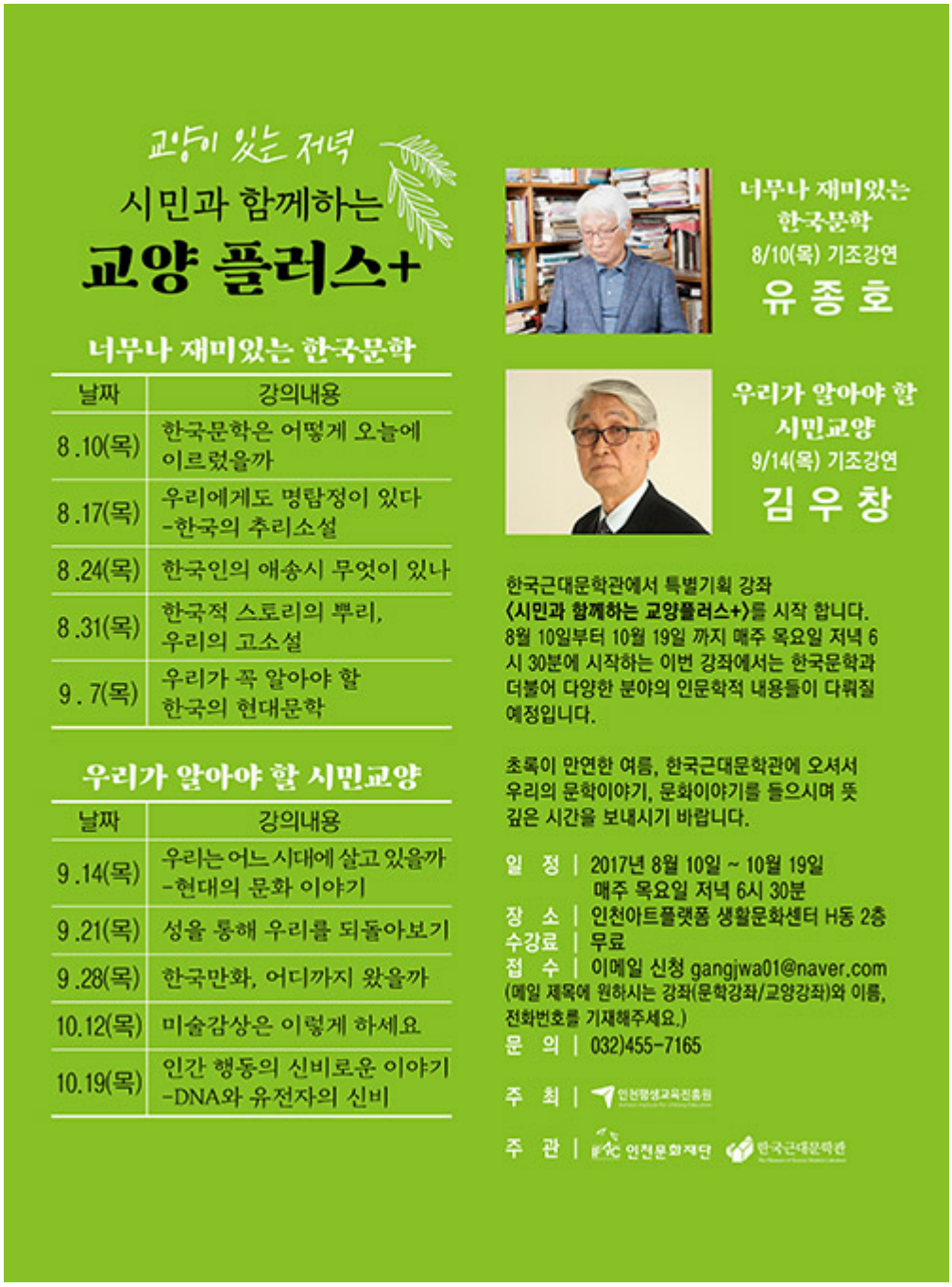
[소식2] 우리미술관 국제 미디어작가 초청전 2

<이국적이야기 迫降>

8월 1일(월)부터 8월 23일(수)까지 열리는 <이국적 이야기(迫降)>이 그것이다. 본 전시는 중국 작가 후타오(胡滔)와 순아오(孙奥)가 공동으로 제작한 인터렉티브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이국적 이야기(迫降)> 전시는 우리미술관의 국제 미디어작가 초청전 두 번째 시리즈이다. 이국(중국) 작가의 시선으로 지역(우리미술관 주변)을 탐색 • 관찰하여 지역의 환경과 일상을 시각언어로 재구성하고,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로 반응하게 하는 설치물을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후타오(胡滔)와 순아오(孙奥)는 중국의 젊은 작가들로 사운드와 빛을 위주로 하는 인터렉티브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지역에 머물며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두 명의 중국작가는 지난 6월에 입국하여 이때부터 우리미술관이 위치한 동구 만석동을 작품 활동의 근거지로 삼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방인의 시각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우리미술관 <이국적 이야기(迫降)>

- 관람시간 : 10:00~18:00(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20분 전까지 가능)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다음날



- 주 최 :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 후 원 : 인천광역시 동구청
- 문 의 : 우리미술관(032.764.7664)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92번길 3-7,9,11

공간문화팀

[소식3] <교양이 있는 저녁 :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플러스+> 강좌 개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특별기획 강좌 <교양이 있는 저녁 :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플러스+>가 8월 10일 시작된다.

8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문학'과 '시민교양' 두 개의 주제로 진행이 된다. 먼저 시작되는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살펴본 뒤, 한국의 추리소설, 한국인의 애송시, 한국적 스토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고소설, 한국의 현대문학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강좌 <우리가 알아야 할 시민교양>에서는 현대의 문화이야기부터, 성 담론, 한국만화, 미술 감상, DNA와 유전자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진다. 인문학에 흥미와 애정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좌에서 한국 문학 평론과 인문학의 거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8월 10일과 9월 14일 대담 형식의 기조강연이 진행되는데, 8월 10일엔 유종호(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가 9월 14일엔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이 직접 맡았다.

<교양이 있는 저녁 : 시민과 함께하는 교양플러스+>는 한국근대문학관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협업으로 기획되었다.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문학관인 한국근대문학관은 그 동안 <한국 근대문학 명작특강>과 <고전문학 명작 특강>, <세계문학특강> 등의 문학강좌와, <인문학이 있는 저녁>, <인천이 있는 저녁> 등의 인문·교양강좌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해왔다. 이번 강좌는 한국문학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일 정 : 2017년 8월 10일 ~ 10월 19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총 10회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수 강 료 : 무료
접수기간 : 2017년 7월 25일부터, 선착순 40명
접수 및 문의 : gangjwa01@naver.com, (032)455-7165

한국근대문학관

[소식4] 5회 인천독립영화제 'in-Film 2017'
오래달리기

2017년 8월 18일 금요일부터 8월 20일 일요일까지 3일간 '5회 인천독립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여름 한 달간 열리는 영화제를 하루 이틀 정도 줄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영화제 기간을 조금 늘려 보기로 했습니다.

'인천독립영화제'와 '인천독립영화협회'는 올해 '인천독립영화' 3일과 4일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올해 '인천독립영화' 중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영화 중 56개를 골라 보여주고, 그 중 일부를 골라 21개를 골라 상영하려고 합니다.
21개를 골라 그 중 1개를 뽑아 6개를 보입니다.

섹션 1 : 여자답게 싸워라 / 세계화시대의 진화 / 야간근무
섹션 2 : 가슴의 문을 두드려도 / 18K / 남식의 다큐 / 핫스윙 / 콩자반
섹션 3 : 기쁜 우리 젊은 밤 / 그림을 그릴 시간 / 회색지대
섹션 4 : 곁에 서다 / 밝은세상놀이 / 무단조퇴
섹션 5 : 순환소수 / 무방향버스 / 줄넘기
섹션 6 : 울이에게 / 명령 / 잠몰 / 모놀로그

영화제 기간 동안 개막식, 경쟁 섹션 영화 상영 GV, 토론회, 폐막식, in-Film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영화는 모두 무료 상영 한다.

더 많은 일정과 영화제 안내는 '인천독립영화제' 페이스북 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인천독립영화협회 010.9042.0736 / 010.4331.0715 에 문의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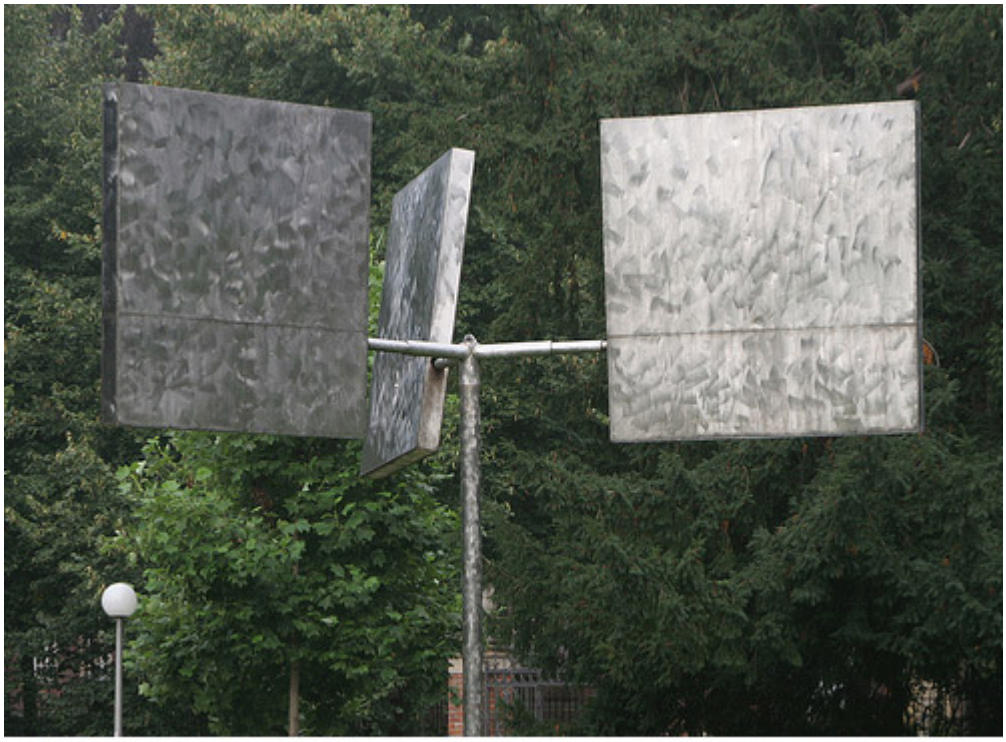
인천독립영화협회

하늘아래 미술관 미리 혹은 다시 보기

지난 7월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레지던시 입주작가들과 함께 독일에서 열리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와 카셀 도큐멘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호 지구별 문화통신에서는 탐방에 참여한 2분의 작가님을 통해 독일의 뮌스터와 카셀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아래 미술관'이라는 모토로 10년마다 열리는 공공미술의 현장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Münster Skulptur Projekte)와 5년을 주기로 진행되며 '미술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실험 현장'이라 불리는 카셀 도큐멘타(Kassel Dokumenta)가 동시에 펼쳐지는 이번 독일의 여름은 유난히 더욱 뜨겁다. 필자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한 2017 IAP 예술현장학습-독일 현대미술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해 세계적 미술행사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였고 그 중에 뮌스터시의 2017년 조각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어떻게 예술과 도시가 함께 어울려 40년의 긴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올 여름 인구 32만 명 독일 북서부의 중소도시 뮌스터(Münster)에서는 1977년부터 시작되어10년 주기로 도시 전역에서 펼치는 조각프로젝트(Skulptur Projekte) 행사가 6월 10일에서 10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매해 전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LivCom-Awards 기관에서 뮌스터 시는 2004년 1위를 수상



할 정도로 복지와 자연, 문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인구의 20프로에 가까운 6만 여명이 대학생인 교육도시이고 뮌스터 돔(St.Paulus Dom)을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 중세시대의 성당이 즐비한 가톨릭 종교의 도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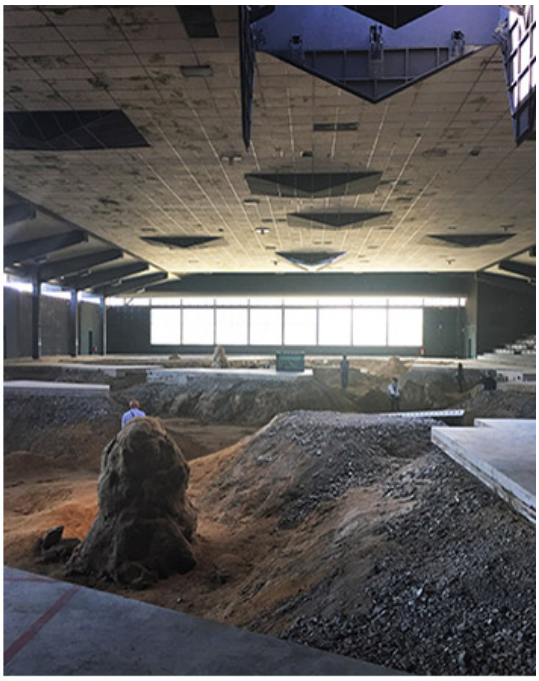
뮌스터 돔(St.Paulus Dom)

람베르티 키르헤(St. Lamberti Kirche)

구서독의 평온한 작은 도시였던 뮌스터에서 지금은 행사 방문자 수만 60만 명에 가까운(2007년 기준) 조각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첫 구상은 1973년 뮌스터 시에서 구입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의 시민들에겐 상당히 '모던한' 작품이었던 조각가 조지 리키(George Rickey)의 '3개의 회전하는 사각형'(Drei rotierende Quadrate)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반발로부터 시작된다.

조지 리키(George Rickey)의 '3개의 회전하는 사각형'(Drei rotierende Quadrate)

이 작품에 대한 논란과 토론이 계속되자 당시 서독의 주립은행이 1975년 당시130,000DM(65,000유로)



가격을 지불하고 조지 리키의 작품을 뮌스터 시에 선사하기로 결정하고, 베스트팔렌 주립미술관 관장 클라우스 부쓰만(Klaus Bußmann)과 세계적 큐레이터 카스퍼 쾨니히(Kasper König)는 뮌스터 시민들에게 현대예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1977년부터 예술가들 초대해 뮌스터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이거나 또는 지형적인 관계를 예술과 접목시켜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토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실험장의 형태로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조각프로젝트는 카스퍼 쾨니히(Kasper Koenig)가 1회부터 꾸준히 총감독을 맡고 있고 브리타 페터스(Britta Peters)와 마리아네 바그너(Marianne Wagner)와 큐레이터로 함께 준비했으며 19개국의 작가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준비기간 동안 세 개의 매거진이 발간되었는데 첫 번째 "Out of Body"는 퍼포먼스에 관한, 두 번째 "Out of Time"은 시간, 마지막으로 "Out of Place"는 장소특성화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사회와 신체, 시간, 장소의 개념들이 점점 증가하는 디지털화 시대에 어떻게 달라지고 또한 예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전시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 조각프로젝트에 초대된 세계적인 작가들은 꾸준히 "예술과 공공장소 그리고 도시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여타 2-3년 주기의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성격의 행사와는 비교가 안되는 10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 동안 스스로 전시할 공간을 찾아서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들이 시내 중심가와 시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 산책로 프로메나데(Promenade)주변과 하펜(Hafen), 아호수(Aasee)를 비롯한 시 전역에 전시되기에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품을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또한 뮌스터 방문객들에겐 시내 안 밖으로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조각 작품을 찾아다니며 입장료가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Marl이라는 뮌스터 근교 작은 도시에서도 몇 작품을 선보이며 각 도시의 공공콜렉션을 교환해 다른 장소에서 선보이고 또한 이전보다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실험하고 질문하는 퍼포먼스와 비디오작업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등 이 시대의 조각의 개념과 공공영역의 예술에 대한 재규정을 반영하며 예술을 통해 비판적 경험 장을 만들어 다양한 장르의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관계를 질문하고 있다.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앞으로의 삶 이후(After A Life Ahead)

지난 2012년 카셀 도쿠멘타에 참여하기도 했던 프랑스출신의 피에르 위그는 2016년 폐장되어 곧 허물어 질 아이스링크에 3미터의 땅을 파고 피라미드 모양의 개폐식 천장의 창문을 통해 공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몰두하면서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레퍼토리의 경계를 없애고 예술, 기술 그리고 자연의 결합 속에서 '실재'에 관한 개념을 확장시킨다. 사라져가는 공간을 재해석해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이 작업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즐겨 찾던 장소가 허물어지기 전, 그 공간 안에서 새롭게 펼쳐진 작업을 통해 자연스레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며 현대 미술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본다.

니콜 아이젠만(Nicole Eisenman), 연못을 위한 스케치 (Sketch for a Fountain)

뉴욕에서 작업하고 있는 니콜 아이젠만 역시 뮌스터 시민들의 산책로 프로메나데(Promenade)주변에 연못을 설치하고 다섯 피규어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통상 마주치기 쉬운 장면이지만 장식적이며 고전적 방법을 벗어나 매력적이거나 영웅화된 형상이 아닌 뭔가 어색하고 반영웅적인 형상을 통해 공공장소 안에서 오래된 연못의 장식품으로써의 조각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일상적이나 새로움을 담은 이 작품 역시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이세 에크만(Ayşe Erkmen), 물위에서(On Water)

터키출신의 아이세 에크만은 뮌스터 항구 북쪽의 주말이면 항시 관광객이 즐비한 강기슭과 상대적으로 공장지대의 음습한 남쪽기슭을 가로지르는 물속에 수면보다 살짝 낮은 길을 만들었다. 분단되어 보일 수 있는 양쪽 지역의 공간을 '물 위' 다리가 아니라 '물 속' 다리로 연결시켜 관람객들이 마치 물위를 걸어 다니는 듯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여름철의 친절한 이벤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詩)적이면서도 점차 수송과 운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뮌스터 항구의 장소를 선택해 뮌스터 특정장소의 의미를 되짚어보거나 유럽의 난민문제나 종교적 상징 등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주변 환경과 시민, 관광객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작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제레미 델러(Jeremy Deller), Speak to the Earth and It Will Tell You (2007-2017)

2013 베니스비엔날레 영국 대표 작가였으며 2004년 터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제레미 델러는 이번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진행해 온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10년전 54개의 뮌스터 주말정원클럽에 2017년까지 각자의 정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소한 일부터 작물의 성장 과정이나 기후의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사진이나 글, 스케치로 기록하며 '정원일기'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제안했고 그 중에 다양한 국적의 주말정원클럽의 시민들이 만든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대략 30권의 녹색 정원일기장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델러의 작품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예술과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사회적, 환경적, 미학적 기능 안에서 삶을 어떻게 함께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고 또한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과 현지인이 배제된 단기간의 보여주기식 공공기획과 행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 작가의 모습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흥미와 관심을 갖고 10년 동안 참여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히토 슈토이얼(Hito Steyerl), HellYeahWeFuckDie

독일대표작가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히토 슈토이얼은 영상작업과 설치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Hell Yeah We Fuck Die‘ 라는 제목은 온라인 음악잡지 빌보드지 중에 지난 10년간 영어 음악차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다섯 단어의 나열이다. 이 단어들은 다시 음악작곡을 위한 베이스역할을 하고 다시 빛나는 글자 모양으로 설치되었다. 로버트 실험장면의 영상은 LBS건물 (작품이 전시 되고 있는 장소)이 건설되기 전 기존에 위치했던 옛 뮌스터 동물원과의 장소특정적 관계를 통해 동물들의 생존지역과 현대산업기술의 관련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인식하며 고민하게 만든다. 또 다른 영상작업에서는 터키의 남동쪽이며 시리아와의 국경지역인 Cizre배경으로 핸드폰 SIRI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 전쟁 속에서 컴퓨터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대략 살펴본 올해의 전시 작품처럼 40년 전, 뮌스터 시민에게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자 시작된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는 어느새 10년 주기라는 호흡처럼 서서히 세계의 공공미술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 필자가 유학생활을 했던 당시의 뮌스터 2007년 조각프로젝트를 되돌아보면 뮌스터 시민들은 100여 일간의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전시를 본다는 생각보다 여유롭게 산책하듯 주변의 작품들을 지나치고 발견하며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맞이했다. 시나 개인 기증자가 구입한 작품은 영구 설치되어 더욱 더 일상의 한 조각으로 도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가 한 번도 도시를 직접 변화 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작품이 도시에 원래 존재했던 것처럼 일부분으로 흡수되어 공공장소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프로젝트로서 역할을 하고 진행되길 개인적

으로 바라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10년 후 다시 뮌스터를 방문 했을 때에는 여전히 '조각'이 무엇이라 불리며 이해되고, 어떠한 작업들이 익숙함과 새로움의 관계 속에 어떤 모양새로 하늘아래 펼쳐질 지 기대해 본다.

글, 사진/ 안상훈

서른 나이에 독일로 떠나 뮌스터, 베를린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흘러 다니다가
올해 귀국해 인천아트플랫폼 8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2017년 하반기 강좌 소개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근대문학관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인문학과 문학에 대한 강좌를 기획하여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문학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기존과는 색다른 테마를 내세운다거나 인천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문학의 재미와 인문학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에도 이런 강좌가 이미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새롭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정비석의 『자유부인』 부터 한강의 『채식주의자』 까지 “문학이 있는 저녁 - 한국 현대문학 특강”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우리가 몰랐던 인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도시계획, 경제, 인천의 골목길 등 모두 5번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8월 이후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원로 문학평론가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낸 유종호 교수와 중견 평론가인 유성호 교수가 대담을 하고 이어 우리 탐정소설, 한국인의 애송시, 우리 이야기의 뿌리인 고전소설, 오늘날의 현대문학 등의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강좌에 이어 “시민이 알아야 할 인문교양” 강좌가 이어지는데 첫 강의는 대담 형식으로 기획했다. 원로 문학평론가이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와 문화연구자 현광일 선생이 지혜로운 삶과 오늘의 세계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누며 이어 만화, 미술 감상, 성 정체성, 유전자와 인간 행동 등의 흥미로운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정 코너로 진행되는 “문학이 있는 저녁 — 세계문학 특강” 또한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에는 노벨상 수상 작가들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이 강좌는 9월에 시작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 평가받는 『무정』 발표 100주년과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학이 있는 저녁 — 근대문학 명작 특강”은 『무정』 과 윤동주의 시만을 대상으로 총 여덟 번의 강좌를 기획중에 있다.

문학이 있는 저녁
한국 현대문학 명작 특강

한국근대문학 낭독극장

한국근대문학 낭독극장

문학이 있는 저녁
한국 현대문학 명작 특강

우리가 몰랐던 인천 이야기
2017년 7월 6일 ~ 8월 3일

나눔을 통해 행복의 씨앗을 심어갑니다.

화도진 문화원 박미숙 원장

인천문화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에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을 만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클럽으로 지역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뜻을 몸소 행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백네 번째 아너, 화도진 문화원의 박미숙 원장님을 만나봅니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하시며 미소 지으셨지만, 본 인터뷰를 통해 지역 사회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박미숙 원장님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문연 화도진 문화원의 초대원장이신 박미숙 아너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미숙 원장님

박미숙 원장님

Q.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화도진 문화원장 박미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실로암 어린이집과 송림주공어린이집, 그리고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다 사람들보다 주위를 둘러볼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모여 작은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삶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다 보니 주위에서 좋게 봐주시며 좋은 기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화도진 문화원이 개원하며 그 초석을 만드는 자리에 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송림주공 어린이집

실로암 요양원

화도진 문화원

Q. 인천 동구에 올해 초 문화원이 개소했다는 소식은 인천의 문화발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 원장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천 동구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A. 인천과의 인연은 2010년 아이들이 송도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인천 송림 주공어린이집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담한 규모의 송림 어린이집에 특별히 마음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등원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인사하며 학부모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지역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에 어떠한 환경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실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주민자치위원, 동구 꿈드림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동구 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싹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동구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함께하셨을 것 같습니다.

A. 어린이집 어머님들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이나 시설들이 부족해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고, 아이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이사하는 가구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동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생긴 키즈까페 '동구랑 스틸랜드'와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내놀이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결과입니다.

동구랑 스틸랜드(인천 동구 화수로69번길 17)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인천 동구 서해대로520번길 12)

Q. 화도진 문화원의 탄생도 이러한 동구의 결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원에 대해 지역사회가 갖는 기

대도 클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갖는 역할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A. 화도진 문화원은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 고장의 자존심을 높이고 구민들의 긍지를 북돋고 싶어요. 우리 동구는 중구와 더불어 개항과 동시에 형성된 인천 중심지역으로서 근·현대 인천의 문화예술 중심지였다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 유산을 구민들과 함께 지키고 키우고, 또 함께 나누어서 구민들이 즐겁고, 또 나아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이러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동구에서는 화도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민들께서 해가 거듭될수록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을 해주십니다. 올해는 우리 문화원이 첫해를 맞이한지라 많은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축제 기획, 운영 단계를 전적으로 담당할 계획이에요. 축제와 더불어 동구 편찬사 작업을 진행 중인데,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 이 지역의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잘 정리하여 구민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Q.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신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기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딸과 함께)

A. 저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돕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작지만 저의 정성과 관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와 성공, 경쟁에서의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따뜻한 사람, 좋은 인

[illegible]

Q. [illegible]

A. [illegible]

[illegible]

Q. [illegible]

A. [illegible]

[illegible]

기부문화의 새로운 길 아트레인
개항의 철길 위에 아트레인이 달려갑니다.

아트레인
ARTrain

인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아트레인의 탑승자를 찾습니다.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 아트레인은 인천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개인 혹은 법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 후원의 경우, 기업의 경영철학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문화예술로 함께 만들어드립니다.

아트레인 참여 문의 :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32-455-7114, artrain@ifac.or.kr

인터뷰 정리 / 인천문화재단 유영이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닭과 아이들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15,000원
강화뉴스
송현 통합RPC, 중앙회 감사로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출판기념
강화사람들의
들어보실
2017. 7. 6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일시 2017. 7. 6(목) 오후 6시
장소 다인아트 북카페

닭과 아이들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2017. 7. 6(목) 오후 6시
다인아트 북카페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일시 2017.7.6(목) 오후 6시
장소 다인아트 북카페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일시 2017. 7. 6
장소 다인아트 북카페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일시 2017. 7. 6(목) 오후 6시
장소 다인아트 북카페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일시 2017. 7
장소 다인아트 북카페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일시 2017. 7. 6(목) 오후 6시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강화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화뉴스가 만난 사람들
일시 2017. 7. 6(목) 오후 6시
장소 다인아트 북카페
SECO

* 갤러리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사일/ 2017.07.06(목) 오후 6시

장소/ 다인아트북카페

사진/ 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민경찬